

부대상황을 나타내는「ながら」절의 어스펙트 제한 해소에 관한 고찰

이정옥*
jungok-ok@hanmail.net

<目次>

- | | |
|-----------------------|-------------------|
| 1. 선행연구 및 문제제기 | 2.1.1 빈도부사 |
| 1.1 선행연구 | 2.1.2 대상어의 복수화 |
| 1.2 문제제기 | 2.2 통어적인 요소 |
| 2. 「ながら」절의 어스펙트 제한 해소 | 3. 주절의 어스펙트 제한 해소 |
| 2.1 어휘적인 요소 | 4. 나오며 |

主題語: ながら 절(nagara clause), 부대상황(denoting attendant circumstances), 어스펙트(aspect), 주절(main clause), 종속절(subordinate clause)

1. 선행연구 및 문제제기

1.1 선행연구

「ながら」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의미에 대한 연구, 문의 계층성에 관한 연구,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동사의 어스펙트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의미에 대한 연구이다. 「ながら」를 <동사>(朝ご飯を食べながら、勉強した)와 <역접>(知っていながら、教えてくれない)두 가지 의미를 지님을 밝힌 논문으로, 森田(1980), 益岡(2000: 202~203), グループジャマシイ(1998)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동사>는 시간관계를 나타내고, <역접>은 접속관계에 따른 용어라는 村木(2006)의 지적대로 <동사>라는 용어 대신 <付帯状況!>(부대상황)을 사용하는 선행연구도 많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부대상황>이라

* 동덕여자대학교 일본어과 강사

1) 益岡・田窪(1989)、三宅(1999)、川越(2002)、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8) 등이 속한다. 益岡・田窪(1989: 175)는 [付帯状況を表す副詞節は、ある動作と同時並行的に行われている付帯的な動作や状態を述べるのに使われる]、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8: 248)는 [主節の事態が成立するとき同時に付

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둘째, 문의 계층성에 대한 연구로 南(1974, 1993)를 들 수 있다. 南(1974, 1993)는 구성요소의 성분 간의 상호포함관계에 따라, 부사절을 ABC로 3분류하고, A류의 「ながら(비역접)」과 B류의 「ながら(역접)」으로 분류하고, 각각 「ない」형의 공기여부, 문말의 모달리티 제한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ながら」가 메인인 연구가 아니라 부사절 전체를 다룬 연구이지만 「ながら」절을 구조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라 할 수 있겠다.

셋째,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일본어교육 분야에서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鄭·坂口(2001), 坂口·鄭(2006), 韓(2008, 2011)등을 들 수 있다. 鄭·坂口(2001)은 일본어의 「ながら」와 한국어의 「(으)면서」 형식을 대조한 것이다. 韓(2008)은 일본어의 「ながら」와 한국어의 「(으)면서」에 대한 비교연구로 한국인일본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를 실시하여 각각 대응하는 경우와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러나, 鄭·坂口(2001), 韓(2008)과 같은 대응연구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각각의 연구가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유지>를 나타내는 경우 대응한다고 하였으나, 양국어의 동사의 차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韓(2008)의 경우 단순한 학년별 차이를 일본어능력차이로 본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坂口·鄭(2006)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일본어학습자의 「ながら」사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어모어화자가 중국어모어화자보다 오용이 많다고 지적하였으며, 일본어의 「ながら」와 비슷하지만 사용범위가 다른 한국어의 「(으)면서」의 영향이라고 설명하였다.

넷째, 동사의 어스펙트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는 三宅(1995, 1999), 和田(1998), 益岡(2000) 등이 있다. 和田(1998)는 「ながら」절의 어스펙트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시진행을 나타내는 「ながら」와 역접을 나타내는 「ながら」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ながら」절의 어스펙트가 <계속>인 경우는 <동시진행>을 나타내고, 「ながら」절의 어스펙트가 <퍼펙트>인 경우는 <역접>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역접>을 나타내는 경우는 대상으로 하지 않을 예정이지만²⁾, <동시진행>의 경우 어스펙트가 <동시진행>을 나타낸다는 것은 과정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三宅(1995, 1999)와도 관련성이 있다. 三宅(1995, 1999)의 연구는 본 연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随的に成立している同じ主体の状態・状況を表す]라고 지적하였다.

2) 동시진행, 역접에 관한 의미의 차이는 중요한 「ながら」의 연구주제라 생각되지만 본고에서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古い伝統を守りながら新風を吹き込んだ」와 같이 의미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和田 : 94-95)

1.2 문제제기

앞에서 언급한 三宅(1995, 1999)는 동사의 어스펙트적 관점에서 「ながら」절을 분석하였다.

- (1) 口笛を吹きながら、歩いた。
- (2) ギターを弾きながら、歌った。
- (3) 鼻歌を歌いながら、部屋を出た。
- (4) 笑いながら、立ち上がった。

三宅(1995,1999)는 위의 예(1~4)와 같은 예문을 들어, 「ながら」절이 <과정>이 있는 경우라면, 주절에 상관없이 <부대상황>으로 적격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때의 <과정>이란 森山(1988)의 용어로, 「~シツツケル、~ハジメル」와 공기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発見しながら、*完成しながら、*目撃しながら、*設立しながら、*みかけながら」등은 「ながら」절에 쓰이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예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예문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5) 本論文では、京都市内において様々な町の魅力を発見しながらまち歩きを行うための音声ガイドブック「のべる」のデザインについて述べる。

<yahoo>³⁾

- (6) 「自分の言葉」を発見しながら文学の世界でいろいろな人をあたためていきたい。

<yahoo>

선행연구에서 과정성이 없으므로, 「ながら」절에 쓰이지 못한다고 지적한 「発見する」가 예(5, 6)과 같이 「ながら」절에 쓰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예(5, 6)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ながら」절뿐만 아니라 주절에 있어서도 어스펙트 제한이 해소되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예문수집은 검색엔진과 『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少納言』『国語研日本語ウェブコーパス』에서 추출하였다.

2. 「ながら」절의 어스펙트 제한 해소

앞에서 살펴본 예문(5, 6)은 과정성이 없는 동사「発見する」가 사용되었으나, 실제 사용되는 예문으로, 자연스러운 일본어라 할 수 있다. 이는 예(5)의 경우, 「様々な町の魅力を」라는 대상어의 존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문이 단수사태가 아니라 다회성(多回性)을 나타내는 복수사태화(複數事態化)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된다. 예(6) 또한 주절에 사용된 「あたためていきたい」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이 종속절과 주절의 동사 제한은 다회성⁴⁾을 나타내는 경우 제한이 해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ながら」절의 동사의 제한은 단일주체 혹은 일회적인 동작의 경우에 한한다는 언급은 있어 왔다.

三宅(1995:444)는 「お金を借りながら、なんとか生活した」「後ろを振り返りながら、歩いた」와 같은 예문이 성립하는 이유로 「何度も」「しょっちゅう」 등의 부사와 공기하여 반복이나 습관을 나타내는 경우 성립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友松 他(2000)도 「私はいつも料理の本をみながら料理を作ります」「毎晩父はビールを飲みながらテレビを見ます」와 같은 예를 들어 「長い時間にも使える」と 언급하고 있다. 庵(2000)는 「時間的な幅のある動作であることが必要」と 하고 있다. 仁田(1995:96)은 아래의 예문(7, 8)을 들어, 「ユツタリ」와 같은 부사를 부가하여, 변화 후의 자세유지에 초점을 둘 수 있는 문맥을 제공하면 용인도가 상승한다고도 지적하였다.

(7) ??「太郎は座りナガラ弘と話していた。 (仁田1995:96)

(8) 「太郎はユツタリ座りながら弘と話していた。

그러나, 이러한 언급들은 단순한 지적에만 그치고 있을 뿐 「ながら」절에 있어 어느 경우에 다회성 즉 복수사태를 지니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회성을 지니게 되어 시간의 폭을 지니게 됨으로 인해 어스펙트 제한이 해소되는 경우에 대하여 어휘적인 요소와 통어적인 요소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仁田(1995 : 96)에서 든 <유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어와의 대조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4) 工藤(2014)는 <反復性> <習慣> <多回性>의 차이점에 대해, 須田(2010)는 <回数性> <單純反復> <習慣性>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다회성>으로 파악하여 다루고자 한다.

2.1 어휘적인 요소

工藤(1995 : 61~164)는 일본어의 어스펙트의 기본적인 의미를 「완성상과 계속상」의 대립으로 파악하면서도 파생적인 어스펙트 의미로 「反復相」「パーフェクト」「単なる状態」를 들었다.

- (9) その本なら一度読んでるよ。「パーフェクト」
- (10) あの頃は、よく、人が結核で死んでいた。「反復相」
- (11) この道は曲がっている。「単なる状態」

寺村(1984 : 128)도 「本来点的な現象でも、それが連続すると線的な事象と見なされるということがある」라는 지적을 통해, 「父はこのごろ6時前に起きている」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일본어의 「テイル」에 대한 설명으로, 종속절의 동사의 어스펙트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생적인 의미 중 「反復相」은 「ながら」절의 동사 제한해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다회성을 지니게 되면 동사의 어스펙트 제한도 해소되며, 동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ながら」절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1 빈도부사

「ながら」절의 어스펙트 제한이 해소되는 어휘적인 요소로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毎朝 毎日 等 / 何回も、何度も 等」와 같은 빈도부사⁵⁾에 의한 제한 해소이다(예(12~14)).

- (12) 毎朝見かけながら、“お前も頑張れよ……”と、心の中で嘯きます。
<http://blog.livedoor.jp/hitomi_stardust/archives/2008-02.html>
- (13) 毎日通勤で見かけながらどうなるのか楽しみだったのですが……
<<http://pyoblog.ti-da.net/d2008-10.html>>
- (14) 覆面パトを何度も見かけながら、出掛けて参りました。
<<http://dogsmile08.blog39.fc2.com/blog-entry-1582.html>>

이러한 지적은 선행연구에서도 밝혔듯이 간략한 언급은 있어 왔으므로 새로운 지적이라고 할 수 없으나, 「ながら」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이 부분에만 초점을 둔 연구는 관견에 의하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よく、いつも、しょっちゅう 等」와 같은 빈도부사의 예문은 수집하지 못하였다.

仁田(2002 : 262~270)은 <빈도부사>를 「ときどき」와 같은 <頻度の副詞>, 「五回」와 같은 <度数の副詞>, 그리고 마지막으로 「毎日」와 같은 <繰り返し期間の副詞>로 3분류하였다. 「繰り返し生起する事態の、その繰り返しの単位となる期間を差し出しながら、事態の繰り返시를表すものであり、時間関係の副詞につながることを有している」라고 언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仁田(2002 : 262~270)에 따라 빈도부사로 다루었다. 특히 이러한 빈도부사는 종류에 따라 「ている」의 의미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度数の副詞>의 경우는 <경험완료>를 나타내나(예(15)), <頻度の副詞> <繰り返し期間の副詞>와 함께 쓰인 「ている」는 예(16, 17)과 같이 <繰り返し>를 의미한다.

(15) 未練なく退陣することを何度も表明している。<経験·完了>

(16) 日々おびただしく消費している塩分を外から捕えば疲労はいくからやわらぐものと思われた。<繰り返し>

(17) 妹が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6)。<繰り返し>

그러나, 예 (12~1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ながら」에 쓰인 빈도부사는 하위분류와 상관없이 반복, 즉 다회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도 「ながら」중속절의 어휘적 어스펙트는 「ている」의 어스펙트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빈도부사와의 공기는 다음의 예(18~1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塗る、転ぶ」와 같은 동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 とっておいたマリネードをハケを使って何度もぬりながら串を返し、肉に火が通るまで20分ほど焼く。 <フルーツ>

(19) そのなかをサンデー先生と子どもたちは、走って走って走りつづけました。
何回も、ころびながらね。 <ひょっこり>

2.1.2 대상어의 복수화

복수사태화하는 어휘적인 요소의 두 번째로는 대상어의 복수화를 들 수 있다. 대상어의 복수화는 예(20~24)의 「いろいろの人を」와 같이 대상어 자체를 복수화하는 하는 경우와, 예(25~32)의 「一つ一つ」와 같은 어구와의 공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대상어 자체를 복수화하는 경우는 다음의 예(20~24)를 통해 알 수 있다.

6) 예(15~17)은 仁田(2002 : 294~297)의 예를 인용한 것임.

- (20) 道中カレン族の衣装を見つけた人々を見かけながら車を走らせると、到着
<<http://naratour.blog89.fc2.com/category7-1.html>>
- (21) この他にも、東北自動車道で3件のスリップ事故をまざまざと目撃しながら東京は池袋
に無事到着、10分程度の遅れでした。
<<http://x11pi8hg.blog13.fc2.com/blog-date-20090201.html>>
- (22) 色んなことを遊びの中で発見しながら、必死になって遊ぶりっくん。
<<http://rickymommy.blog69.fc2.com/blog-date-200612.html>>
- (23) ピアノの鍵盤上では気付きにくかったアーティキュレーションや音色の変化などを発
見しながら演奏していただけたら良いな、と思います。
<http://www.piano.or.jp/enc/news/2011/09/02_13076.html>
- (24) 鉄道車両が持つ個性・魅力・面白さを発見しながら楽しめる、鉄道擬人化を多数公開され
ています。
<http://train.sakura.ne.jp/freight/link/trainlink/kanto_2.html>

예(20)은 대상어 자체가 「人々」라는 복수이며, 예(21, 22)는 「3件の」「色んな」와 같은 연체 수식을 통해 대상어가 복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23)은 「や、など」등을 통해, 예(24)는 대상어 자체의 나열을 통해 복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어구를 통해 사태를 복수화시키는 경우는 다음의 예 (25~32)를 들 수 있다.

- (25) 大切なのはきちんと1つ1つクロスを完成しながら縫い進めていくということ。
<<http://onlykid.blog26.fc2.com/blog-date-201201.html>>
- (26) 僕と同様にマレーシア人と日本人の違いを多く発見しながらいつも驚いていたと彼は続
けた。
<<http://cybermogu.seesaa.net/category/7122635-1.html>>
- (27) 駅から川まで40分ほど歩くんですけどそうやって色々発見しながら歩くと楽しかったです。
<<http://wnleader.blog59.fc2.com/blog-date-201207.html>>
- (28) 一輪一輪、レンゲショウマを見かけながら、進みます。
<<http://yasuragusizen.blog85.fc2.com/blog-entry-203.html>>
- (29) 駅からまんじゅう屋を何軒も見かけながら坂を下った。
<<http://blog.okumura.com/archives/200803-1.html>>
- (30) 子どもたちは製品を分解して、次々と電磁石を発見しながら、その働きと応用範囲の広さ
を目の当たりにします。
<<http://news.goo.ne.jp/article/benesse/life/benesse-5288.html>>

(31) 夏祭り(もぎ店)の告知を所々で見かけながら歩いていて思ったんですが、

<<http://afuroblog.blog50.fc2.com/blog-date-200907.html>>

(32) そんな作業をあちこちで見かけながら車を移動していくのだけれど。

<<http://lovehee92.blog118.fc2.com/blog-date-201007.html>>

예(25-30)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つ1つ」「多く」「色々」「一輪一輪」「何軒も」「次々と」 같은 어구로 인해 대상이 복수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예(31-32)의 「所とところで」「あちこちで」와 같은 장소를 나타내는 상황성분과의 공기를 통해서도 대상어를 복수화하여 사태의 다회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어구에 의한 복수화는 과정성이 없는 동사 「完成する、発見する、みかける」뿐만 아니라, 예(33)과 같이 과정성이 있는 동사「味わう」와 함께 쓰인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다.

(33)自然を一つ一つ味わいながら、毎日を、一刻を楽しく過ごせ。 <冒険>

2.2 통어적인 요소

다음으로 「ながら」절이 다회성의 의미를 띠게 되는 통어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회성을 띠게 하는 통어적요소로는 「ていく」와 같은 어스펙트 표현(예(34-35)), 예(36)과 같은 「~たり(~たり)する」표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통어적 요소에 의해 종속절에 다회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34) 合唱とは自分にとってなにかを発見していきながら成長していく過程を書いた作品でございます。

<<http://blog.livedoor.jp/fw190d2dora/archives/51477724.html>>

(35) 福岡の良いところを再発見していきながら、お部屋のみでなく町を紹介できるように精進してまいります。

<<http://www.nishitetsu-chintai.com/tenpo/hirao.html>>

(36) 途中で偶然お友達プリさんと会ってお話したり、知っているハイプリさんを見かけたりしながら、うろうろ狩りをしていたのだけれど。

<<http://blog.livedoor.jp/keikeinakeiru/archives/2005-04.html>>

(37) 地域の中でネットワークをつくっていきながら、たくましく生きていく力を妻のほうは身に付けていくんです。 <産婦人科>

「ていく」어스펙트의 일종으로, <운동의 계속적인 진전>을 나타내므로 지속성 즉, 폭을 지니게 하는 역할을 한다. 「ていく」에 의한 복수화는 과정성이 없는 동사 「完成する、発見する、みかける」뿐만 아니라, 예(37)과 같이 과정성이 있는 동사 「作る」와 함께 쓰인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다.

3. 주절의 어스펙트 제한 해소

다음으로, 주절에는 제한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⁷⁾.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三宅(1995)는「ながら」절의 주절에는 동사의 제한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鄭·坂口(2001)는 예(38)를 들어 주절에도 제한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38) *アルバイトをしながら今の主人に出会った。鄭·坂口(2001)예문

(38-1)アルバイトをしながら、多くの人に出会った。

(38-2)今日、アルバイトをしながら、(ずっと)恋人のことを考えていた。

예(38)은 주절의 「今の主人に出会う」가 지속성을 지니지 못하므로 부자연스러운 문장인데 반해, 예(38-1)은 성립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 예문은 한국어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를 직역하여 생긴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 오용으로 한국어와의 대조에 의한 연구성과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일본어의「ながら」문의 주절에도 동사의 제한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예(38-1)과 같이 주절의 대상어를 복수화하거나, 예(38-2)와 같이 지속적인 동사로 바꾸어주면 성립가능하다.

이와 같이 「ながら」절의 동사의 어스펙트 제한뿐 아니라, 주절에도 동사의 어스펙트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모든 종속절에 제한된다고 언급된 동사 「見かける、発見する、完成する、目撃する」가 쓰인 예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동사가 「ながら」절에 쓰인 경우, 주절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주절의 동사도 제한이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다음의 예(39-40)과 같이 어휘적인 요소와 통어적인 요소에 의해 다회성을 띄게 되면 해소됨을 알 수 있다.

7) 종속절과 마찬가지로 어휘적요소와 통어적요소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하였으나 다양한 예문을 수집하지 못한 관계로 일괄하여 다루었다. 주절의 어스펙트 제한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예문을 수집하여 고찰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39) 怒られてるのにお菓子を発見しながら次々と食べる。

<<http://b1ueb0cs0uth.blog75.fc2.com/blog-entry-281.html>>

(39-1) ??怒られてるのにお菓子を発見しながら食べる。

(40) 「自分の言葉」を発見しながら文学の世界でいろいろな人をあたためていきたい。

<yahoo>

(40-1)?? 「自分の言葉」を発見しながら文学の世界で人をあたためたい。

예(39)는 성립가능하나, 다회성을 나타내는 어휘적인 요소인 「次々と」가 없는 예(39-1)은 성립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예(40)은 성립가능하나, 대상어의 복수화(「いろいろな」)와 통어적인 요소(「ていく」)가 없는 (40-1)은 성립이 불가능해보인다. 몇몇 예를 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41) 軒先、妻、水上の水切りにかみ合わせて、順次完成しながら納めていきます。

<<http://yaneya.blog49.fc2.com/blog-date-200612.html>>

(42) 筋経を完成しながら、洗髓経を創り上げていきました。

<<http://hinomoto-coolkame.com/koho.html>>

(43) 不思議な光景を次々と目撃しながら迷宮の世界を彷徨っていく。

<<http://arino2.blog31.fc2.com/blog-date-201106.html>>

4. 나오며

「ながら」절은 과정성이 없어도 ‘폭’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과정성이 없는 동사에 ‘폭’을 띄게 하여, 파생적으로 「ながら」절을 성립하게 하는 구체적인 요소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과정성이 없어 「ながら」절에 사용되지 못한다고 지적된 동사 「発見する、完成する、目撃する、設立する、みかける」가 「ながら」절에 사용된 예문을 수집하여, 과정성이 없는 동사에 폭을 띄게 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과정성이 없는 동사가 「ながら」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빈도부사, 대상어를 복수화하는 어휘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ていく」「~たり~たりする」와 같은 통어적인 요소에 의해, 「ながら」절이 다회성을 지니게 되고 이를 통해 과정성(‘폭’)을 띄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어의 「면서」와의 대조연구를 시야에 두고 그중에서도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

오용이 많은 장기동사, 仁田(1995 : 96)에서 설명한 <유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て、ているうちに」 등과의 비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여지가 남아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庵功雄、高梨信乃、中西久美子、山田敏弘(2000)『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 工藤真由美(1995)『日本語のテンスとアスペクト』ひつじ書房
- グループジャマシイ(1998)『日本語文型辞典』くろしお出版、pp.378-379
- 坂口昌子・鄭惠先(2006)「ナガラ節に見られる日本語学習者の母語転移—韓国語母語話者が用いる「ながら」の始点的用法を中心に—」京都外国語大学、pp.191-198
- 鄭惠先・坂口昌子(2001)「誤用分析にもとづく「ながら」と「면서」の比較」『世界の日本語教育』11、pp.1-14
- 寺村秀夫(1984)『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2』くろしお出版
- 友松悦子・宮本淳・和栗雅子(2000)「どんなときどう使う日本語表現文型200初・中級」アルク
- 仁田義雄(1995)「シテ形接続をめぐる」『複文の研究(上)』くろしお出版、pp.87-126
- 南不二男(1974)『現代日本語の構造』大修館書店
- _____ (1993)『現代日本語文法の輪郭』大修館書店
- 益岡隆志(2000)『日本語文法の諸相』くろしお出版
- 益岡隆志・田窪行則(1992)『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くろしお出版
- 三宅知宏(1995)「~ナガラと~タママと~テ付帯状況の表現—」『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下)複文・連文編』くろしお出版、pp.441-450
- 村木信次郎(2006)「「~ながら」の諸用法」『日本語文法の新地平』3、くろしお出版、pp.1-24
- 森田良行(1980)『基礎日本語2』角川書店
- 森山卓郎(1988)『日本語動詞述語文の研究』明治書院
- 韓先熙(2008)「日本語の「ながら」と韓国語の「면서」の比較対照」『日語日文学研究』第64輯、韓国日語日文学会、pp.281-300
- _____ (2011)「韓国語の「면서」とそれに対応する日本語の表現」『日本語文学』第54輯、pp.79-98
- 和田礼子(1998)「逆接か同時進行かを決定するナガラ節のアスペクトについて」『日本語教育』97、pp.94-105

논문투고일 : 2019년 12월 31일
심사개시일 : 2020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20년 02월 06일
2차 수정일 : 2020년 0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2월 17일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ながら」절의 어스펙트 제한 해소에 관한 고찰

이정옥

「ながら」절은 과정성이 없어도 ‘폭’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과정성이 없는 동사에 ‘폭’을 띄게 하여, 파생적으로 「ながら」절을 성립하게 하는 구체적인 요소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과정성이 없어 「ながら」절에 사용되지 못한다고 지적된 동사「発見する、完成する、目撃する、設立する、みかける」가 「ながら」절에 사용된 예문을 수집하여, 과정성이 없는 동사에 폭을 띄게 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과정성이 없는 동사가 「ながら」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빈도부사, 대상어를 복수화하는 어휘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ていく」「～たり～たりする」와 같은 통어적인 요소에 의해, 「ながら」절이 다회성을 지니게 되고 이를 통해 과정성(‘폭’)을 띄게 됨을 알 수 있었다.

Study about the aspect restriction cancellation in ‘NAGARA’
with denoting attendant circumstances

Lee, Jung-Og

‘NAGARA(denoting attendant circumstances)’ even if there were no process for the clause, when we had “some range”, there was possible comment. But, it wasn’t being done clearly about what the element in detail which makes the clause be formed had.

There are no process, so the verb which was called when it wasn’t used for the ‘NAGARA’ clause, but, the factor which collects the examples used for the ‘NAGARA’ clause and makes them have the process was checked.

As well as the vocabulary-like element like becoming plural of a frequency adverb and object, I found out that it depends on syntactic element like ‘-teiku’, ‘-tari-tarisuru’.